

□ 7월 4일 전체 교수회의

「소위원회」구성여부 결정

총장선출규정안 마련을 위한 제 3차 전체교수회의가 7월 4일 2동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평의원회에서 내놓은 총장선출규정안과 총장선출규정안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날 전체교수회의에 학내 기자(언론 3사)도 외부기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게 해준다. 이날 간담회는 차림문명의원회의장, 申孝澈교수회의 부의장, 趙文富교수처장, 趙南麒 학생처장, 홍명환총학생회장, 강태식인복위원장, 김호준 직원협의회장, 고원일직원협의회 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이 간담회에서 내놓은 안건이 채택될 경우 소위원회 구성, 여기서 총장선출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28일 평의원회에서 학생·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총장선출을 위한 교수·직원·학생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총장선출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교수대표 5, 직원대표 3, 학생대표 3인으로 구성하자는데 잠정적 합의를 보고 소위원회 구성여부를 전체교수회의에 상정,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학우 실종

원양승선 실습중
日本 오사카에서

어업학과와 기관공학과 학생 83명과 함께 원양승선실습을 나갔던 황영철(어업·4) 군이 일본 오사카현에서 실종됐

다. 이번 실습은 당초 27일까지 일본 오사카·후쿠오카를 기항지로 해서 한국근해 및 동지해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일본에서 황군이 실종됨으로 인해 일정보다 3일 앞서 귀항했다.

한편, 이 「원양승선실습」은 해기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승선경력 및 현장실무실습을 위한 전공필수과목이며, 현재까지 실종된 황군의 생사여부는 밝혀지지 않고있다.

「손바닥에...편지」 출간

강종환학우 창작시집

국어국문학과 강종환(4년) 학우의 창작시집 「손바닥에 쓰는 편지」가 도서출판 제주문화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은 총 4부로 나눠 구성됐고 「달맞이 사람」 「이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남기려 애쓰며」 등의 시가 실려있다.

중·고교 수학경시대회

제일중·대기고 우승

「제 8회 전도 중·고등학생 수학경시대회」가 지난 3일 중등부 21개교와 고등부 10개교 등 2백18명이 참가한 가운데 4동강당에서 있었다.

◇교수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총장선출 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가 두번이나 유보되었다.

수학교육과학회(회장: 오 상훈·3년)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중등부 최우수상은 김재철(제일중) 군이, 고등부 최우수상은 김민수(대기고) 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고등

부 인문분야는 양성표(남녕고) 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지도교사상은 김한중(대기고) 교사와 문문경(제일중) 교사가 수상, 총장상을 받았다.

본교생 3명 구속 「國保法」등 적용

본교 총학생회 이숙수(교육부장·통신공 4) 군이 지난 3일 시내시위중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이숙수군의 구속은 지난 2월 신임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쓰였던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자중 「선·후배의 만남」 부분이 북한을 찬양·고무시키는 내용이어서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제시된 「선·후배의 만남」 부분은 연세대학교 교지에 실렸던 것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학생회 산하 판인특위 위원장 김경기(통신·4) 군도 지난 26일 구속된데 이어 27일에는 판인특위 부위원장

홍영남(관광경영·4) 군이 구속됐는데, 이들의 혐의는 집시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이숙수(통공·4) 군과 연행학생 석방을 위한 집합청와 광기대회가 지난 27일 1백여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광장에서 이날 학생들은 「조국통일 가로막고 이숙수를 구속시킨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총학생회(회장: 홍명환·행정 4)를 비롯한 대표 4인이 구속학생석방 서명서를 갖고 집시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채 결별되었다.

또한, 지난 23일에도 구속학생 석방을 위한 광기대회가 있었으나, 경찰청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학생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성사되지 못한채 시위를 벌이다가 6시쯤 자진 해산했다.

아라민족자주학교 개설

「제 2기 아라민족 자주학교」가 총학생회(회장: 홍명환·행정 4) 주최로 교내일원에서 오는 7월16일부터 22일까지 개설된다.

본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7월 4일까지 각 단대 학생회와 과학생회에 신청·접수를 해야한다.

□ 학과신설 요청을 앞두고

기존 학과특성을 재점검 과감히 정원 조정해야

89년 현재 우리대학은 8개 단과대학에 54개학과가 있다. 공과대학에 4개학과에 비해 인문·사회·자연·교육·의예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인원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는데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라는 자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음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우리대학이 그간의 양적팽창에 발맞춰 내적실속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년 학기초에 밝혀지는 당해년도 졸업생의 취업률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몇년간 30%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 속빈 강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당국이 마련하는 학생정원조정안과 학과신설안이 나올 시기가 되면 신경이 잔뜩 곤두서 이직집단화하게 된다. 즉 잔혹이나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에서 자신들의 학문분야와 유사한 학과가 신설될 기미가 보이면 지레 겁을 먹고 학과신설안의 백지화를 위해서라도 극한투쟁을 불사한다.

지난 78년 생물학과 학생들의 생물공학과 신설 반대투쟁, 88년 전기생물학과 학생들의 분자생물학과 신설 반대 투쟁, 기관공학과 학생들의 기계설계공학과 신설 반대투쟁이 그것이다.

문교부의 승인이 '채 나기도 전에' 학생들이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론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즉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당국의 무분별한 학과신설계획과 학생들의 근시안적 반대투쟁이 한데 맞물려 우리대학의 질적성장의 계기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설되어야 마땅한 학과라면 하무라도 빨리 신설되어야 한다. 도내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인 우리대학 12개학과에 이르고 있다. 그러

한데 이같은 학과신설문제에 앞서 교수위원의 확보, 강의실 확보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말한바위치지 않았다.

학생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당국에서도, 한번 입안된 계획이 外風으로 말미암아, 굴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때야만 양적팽창에 걸맞은 내실을 기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양현숙 記者】

학내 인사

6월30일 2명의 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다.

△文基善(미술학과·교수) △인문대학 미술학과장 겸부를 명함.

△安成洙(국어교육과·전임강사)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참여」

「사회교육 분야」一鄭世九(서울대·사범대) 교수의「사회과 현장교육 연구의 추진요강」金恒元(분교 사범대) 교수의「제주도 사회와 현장교육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金昌植(한림국립·분교 대학원대학) 교수의「국민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에 대한 재해요인 분석」등이다.

「교육행정 분야」一南廷杰(단국대·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의 발전과 전망」李淳熙(분교 사범대) 교수의「교육자치와 주민

 마음은 농촌 저축은 농협
농협중앙회제주도지회

기획

북한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2.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

초기 魏拯民에게 많은 영향받아 「金」, 南·南東 만주서 항일투쟁 전개

I. 배경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김형직과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강반석을 부모로 하여 평양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만주의 중국학교에서 국민학교과정을 마쳤으며 중학 2학년이던 1929년에 불복합동에 가담한 이유로 퇴학당함으로써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그후 1932년의 유격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의 공백기간을 그가 공산당원 공산청년조직에 가입하고 수많은 학생조직을 건설했다거나 혹은 한인 농민들에게 사상교육작업을 했다고 북한 전기작가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류의 주장은 그의 업적에 관한 진실된 기록에 의구심을 던져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김일성의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도 1935년부터 1941년까지의 유격대활동 시절 지숙사관이었다는 웨이정민(魏○民)일 것이다. 그가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쓴 것은 1930년대 초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중국 유격대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 시기부터이다.

북한에서는 우자조(五家子)에 있던 그의 동료가 “하나의 별”을 나타내는 “일성(一星)”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뒤에 그는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의 이름과 정제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있으나 현재의 북한주식 김일성은 만주에서 합일 중국공산당 유격대세력에 참가했던 바로 그 김일성이다. 일본경찰기록이나 중국과 한국의 간첩물들에도 그 김일성 활동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 있다.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만주에서의 합일유격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활동의 막바지에는 그를 체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던 보상을 준다고 써붙일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사람들은 그의 빨치산 활동을 자기들의 혁명전투의 근원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빨치산 집단이 북한의 핵심적 정치지도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와 아울러 김일성의 전기작가들이나 북한역사자들이 워낙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의 상당한 업적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실을 허구로 꾸며내기 위해서 빨치산 활동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金日成과 동북항일연군

1. 연군

만주에 산재해 있던 중국인 및 한인유격대는 19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통합되었다. 유격부대들은 남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봉징위 지휘하의 동북인민혁명군 제1 독립사와 제2

독립사 동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朱鐵이라는 한인계릴라의 지휘하의 제2군 북만주의 제3군, 북동만주의 제4군, 저우周保中的 제5군, 송화강하류佳木斯 인근 유격부대들이 조직한 제6군등이다.

1935년에 개최된 코민테른 제7차 총회에서 모든 반제 세력을 단일전선으로 규합할것과 중국공산당이 같은해 발표한 「8-1선언」에 대응해서 1935년 10월12일에 6개 중국의 모든 항일운동 지도자들에게 이들을부대를 비롯하여 만주의 그밖의 항일세력을 규합하기를 호소하는 독자적인 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에 힘입어 1936년 2월20일 봉징위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동북항일연군이 결성된것이다.

이들 부대들은 전투도 많이 치렀으나 사상자도 많았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한데 이어 1937년에 중국본토를 침략하는등 침략을 강화하자 그들의 지배에 대한 만주에서의 저항도 거세어졌다. 남만주 남동만주 북만주 북동만주에 주요항일세력이 있었고 1930년대 중반이후에는 유격부대가 더 창설돼 연군이 편입하게 된다. 그래서 연군은 모두 11개군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11개군에 대한 일괄적인 통제가 실제로 불가능하여 각군은 독자적인 활동을했다. 이에 활동을 통제하기위한 노력으로 11개군은 각각 활동지역별로 세개의 路軍으로 재편되었다.

남만주에서 활동중인 제1군과 제2군을 합하여 제1로군을, 제2로군은 제4·5·7·8·10군으로 동만주에서 활동했다. 제3로군은 제3·6·9·11군으로 북만주에서 활동했다.

대부분의 한인빨치산은 연군에 가담하여 1932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군과 경찰에 대한 항거를 싸웠는데 동만주에서 활동하여 제2군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한인들이 오랫동안 인주하여 정착했고 수적으로도 중국사람들을 능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무장유격대활동을 시작한 부대는 제2군이었다.

2. 金日成과 제2군

1934년 5월 제2군이 처음 편성되었을때 군장은 朱鐵이라는 한인이었다.

김일성은 처음 제2군의 제2독립사 제1단 제3지대전사였는데 계속 김일성의 제6사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일, 최현, 안길등 다른 한인유격대원들과 더불어 그의 활동은 주목할만 했고, 그는 군인에서의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했다.

1936년에 그는 길림과 모란강사이의 어부(額穆) 지역에서 약 1백명규모의 독자적인 자기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공산유격대를 제압하기 위해 만주의 일본군은 수많은 토벌대를 파견했다. 관동군은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만주에서 기지를 확보하는데 열중했는데 「만주국」경

장의 조치와 더불어 이같은 노력은 결국 연군의 활동에 중지부를 찍게했다. 관동군의 만주에서 공산유격대를 축출하려는 최후의 공격이 가해질무렵, 남만주의 제1로군은 일본의 토벌강화를 예측하고 조직을 재편했다. 제1로군의 마지막 재편과정에서 김일성은 주빈 대다수가 한인인 間島지방에서 활동하는 제2방면군의 군장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자 김일성을 제외한 모든 제1로군 지도자들은 전사하거나 투항했다. 그는 끝까지 투쟁을 계속했으나 연군의 패배와 북만주와 북동만주에서의 제2로군과 제3로군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소련으로 도피했다.



제2방면군 시절의 김일성(X표)과 그의 부대원들(1938년)

다. 김일성은 1941년 3월에 佩索縣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크와 연결된 에이라라는 산길지대를 이용했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대략 1만 5천명의 유격대원이 활동했다고 일본측에서 추정했고 중국은 연군의 11개군에 3만명 이상의 유격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III. 유격대 업적

1. 연군에서의 韓人

김일성은 지난날에 자기가 연군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1932년 4월25일에 한인들로 구성된 합일빨치산부대를 조직했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1934년 3월에 자기의빨치산부대는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재편성하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건설했다고 중국공산유격부대의와 연계로부터 벗어난 한국(조선)의 전통을 수렴하는데에 노력했다는것이다

초기에 김일성은 梁世泰이끄는 한인민족주의 단체에 유격대활동을 시작했으나 공산유격대 지도자는 아니었던 吳義成이 지휘하는 중국인단체로 곧 옮겨 투쟁을 전개했다.

한인빨치산에 대한 중국인의 차별로 인해 많은 한인들은 한인지도자가 이끄는 빨치산부대에 가담했다. 바로 이같은 부대에 한인지도자인 朱鐵이 이끌며 한인 거주자가 많은 間島지방에서 활동했던 연군 제2군이었다. 동만주의 間島지방에는 주민가운데에 한인이

78%, 중국인이 22%였으며, 남만주는 중국인이 80%, 한인이 20%였다. 한인들은 이 지역경작가능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연군안에서의 민족분규는 1935년 1월의 민생단사건을 통해 밖으로 나타났는데 민생단은 원래 비적에 의한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경찰이 만주의 한인거주지에 세운 전위조직이었다. 그런데 이 단체요인들이 비적으로 위장하고 유격대 막사에 들어와 정보를 입수하여 돌아가곤 했다. 이 민생단 사건으로 인해 유격대대의 한인들이 때때로 의심의 받아 처형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제2군 정치위원 웨이정민의 주재로 민생단문제를 해결

하고 일본군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전투는 두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첫째, 재단한인조국광복회라는 합일통일전선조직의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자기가 단체의 회장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35년에 중국공산당의 “8-1선언” 이후, 만주에서 합일한인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1936년 6월10일 조직되었다. 선언과 감령, 8장14조로 세워진 문서화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중요한 역할의 담당자는 연군안에서의 김일성의 상사였던 전광(全光)이었다. 그는 코민테른에서 온 웨이정민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한국인의 접경도시 곳곳에 이 단체의 지부가 결성되었으며 김일성도 1937년 6월의 보천보공격전에 지부인 감산파의 요원과 접촉했으므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접촉은 군사작전의 수준을 넘어서지않았다

둘째로는 이 공격은 김일성이 연군에 의해 조직된 지한단을 이용하여 만주로부터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숨겨놓기 위해 했다.

그가 농부들이나 일본부역자들에게 자주 한말 가운데 하나는 “총이 있으면 총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돈이 있으면 돈을,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달라”는 것이었다.

무기획득에 관해서 김일성은 일본인에게서 빼앗은 총기로 싸웠다고 말했다. 이것은 빨치산들이 무기를 획득하는 방법이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인빨치산들은 중국인 빨치산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거나 때로 그 지역에서 탄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다른 방법은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었다. 소총과 권총의 간단한 정비는 모두 빨치산 스스로 했다. 특히 유격대원들이 자주 소련형 연해주로 가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4. 소련체류 : 1941~1945 김일성 자신은 소련으로 도피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거기서의 그 행적에 관한 자료는 많이 있다. 그는 1941년 3월 8일에 웨이정민이 사망한 직후에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소련으로 피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국경을 넘을 때 단 여섯명의 동료와 같이 있었고, 그후 周保中이 이끄는 중국인 유격대에 가담했다는 중국인 빨치산과 한인 빨치산의 회고사유는 전술적이유 또는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일관해서 지킨다.

소련은 1930년대 후반에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카지호와 우즈베키방으로 강제이주시킨 뒤에 1940년대에는 만주에서 오는 중국인 및 한인유격대원들을 환영했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연군부대의 생존자들은 1940년부터 1941년 사이의 여러시기에 소련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크 근처의 오케안스키아지대에 있는 세곳의 소련군 캠프에서 숙영하며 훈련을 받았다.

많은 한인혁명가들이 목격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도 역시 중국유격대원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빨치산 활동은 늘 승리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들은 끝내 패배했다. 그가 중국및 소련보고서에서 만주로 돌아가서

그는 부대원을 중국인 막노동꾼과 한인농부로 충원했으며 도시와 시골에 대한 많은 공격에서 젊은이들을 징발하고 훈련시켜 전사로 제했다. 유격대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급물자를 획득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인질을 잡고 부유한 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작은마을이나 열차

기점의 여객차에서 가장 많은데 중국인과 한인을 합쳐 거의 3백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어떤때는 50명이하의 인원으로 작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부대는 野野島德소장이 이끄는 토벌대의 주요한 표적의 하나였고, 그 자신도 1940년 8월부터는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부대원을 중국인 막노동꾼과 한인농부로 충원했으며 도시와 시골에 대한 많은 공격에서 젊은이들을 징발하고 훈련시켜 전사로 제했다. 유격대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급물자를 획득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인질을 잡고 부유한 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작은마을이나 열차

글 쓰는 차례

- 1) 시리즈를 시작하며 : 북한 사회주의의 접근
- 2) 북한 前史
- 3) 북한의 정권수립과 권력 구조
- 4)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
- 5) 실학사상이 주체사상에 미친 영향
- 6)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 7) 북한 사회주의 교육정책과 실제
- 8) 북한 문학의 미학적 기초와 그 이해
- 9) 북한의 여성정책과 그 실제
- 10) 북한의 자주노선과 대외정책
- 11) 북한의 통일 전략과 전술
- 12) 남한의 통일전략
- 13) 북한사회주의의 장래

를 숨겨놓기 위해 했다.

그가 농부들이나 일본부역자들에게 자주 한말 가운데 하나는 “총이 있으면 총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돈이 있으면 돈을,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달라”는 것이었다.

무기획득에 관해서 김일성은 일본인에게서 빼앗은 총기로 싸웠다고 말했다. 이것은 빨치산들이 무기를 획득하는 방법이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인빨치산들은 중국인 빨치산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거나 때로 그 지역에서 탄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다른 방법은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었다. 소총과 권총의 간단한 정비는 모두 빨치산 스스로 했다. 특히 유격대원들이 자주 소련형 연해주로 가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4. 소련체류 :

1941~1945

김일성 자신은 소련으로 도피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거기서의 그 행적에 관한 자료는 많이 있다. 그는 1941년 3월 8일에 웨이정민이 사망한 직후에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소련으로 피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국경을 넘을 때 단 여섯명의 동료와 같이 있었고, 그후 周保中이 이끄는 중국인 유격대에 가담했다는 중국인 빨치산과 한인 빨치산의 회고사유는 전술적이유 또는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일관해서 지킨다.

소련은 1930년대 후반에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카지호와 우즈베키방으로 강제이주시킨 뒤에 1940년대에는 만주에서 오는 중국인 및 한인유격대원들을 환영했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연군부대의 생존자들은 1940년부터 1941년 사이의 여러시기에 소련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크 근처의 오케안스키아지대에 있는 세곳의 소련군 캠프에서 숙영하며 훈련을 받았다.

많은 한인혁명가들이 목격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사람들과 싸웠으며 그도 역시 중국유격대원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의 빨치산 활동은 늘 승리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들은 끝내 패배했다. 그가 중국및 소련보고서에서 만주로 돌아가서

그는 부대원을 중국인 막노동꾼과 한인농부로 충원했으며 도시와 시골에 대한 많은 공격에서 젊은이들을 징발하고 훈련시켜 전사로 제했다. 유격대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급물자를 획득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인질을 잡고 부유한 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작은마을이나 열차

기점의 여객차에서 가장 많은데 중국인과 한인을 합쳐 거의 3백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어떤때는 50명이하의 인원으로 작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부대는 野野島德소장이 이끄는 토벌대의 주요한 표적의 하나였고, 그 자신도 1940년 8월부터는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부대원을 중국인 막노동꾼과 한인농부로 충원했으며 도시와 시골에 대한 많은 공격에서 젊은이들을 징발하고 훈련시켜 전사로 제했다. 유격대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급물자를 획득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인질을 잡고 부유한 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작은마을이나 열차

기점의 여객차에서 가장 많은데 중국인과 한인을 합쳐 거의 3백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어떤때는 50명이하의 인원으로 작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부대는 野野島德소장이 이끄는 토벌대의 주요한 표적의 하나였고, 그 자신도 1940년 8월부터는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부대원을 중국인 막노동꾼과 한인농부로 충원했으며 도시와 시골에 대한 많은 공격에서 젊은이들을 징발하고 훈련시켜 전사로 제했다. 유격대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급물자를 획득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인질을 잡고 부유한 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 작은마을이나 열차

파고라

언제까지 우리는 시험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야 하나

지금 학내에서는 총장선출론제를 비롯하여 평양축전참가·구속학생성방및 노태우퇴진요구등으로 인해 어수선하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54개 학과중 약3분의1에 해당하는 학과가 19일부터 불배정인기말고사를 학년별로 시험거부및 시험연기에 들어가 방학은 방학이지만, 학내는 연일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험거부나 연기를 하면서 얻어 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상황이 촉박하고, 투쟁목표가 크다보니 학생들로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시험거부와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시험이란 것은 투쟁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입을 강조해 두고 있다.

시험을 거부·연기를 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나 강의실에 책을 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결론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시시키고자 하는 것은 제3의 입장에서 가타부타성립하는 것이 못된다고 본다. 그러나 거부와 연기의 학회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학회에 주체자보다는 방관자로 나서는 경향이 허다하니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몇 안되는 소수들로 인해 다수가 활동하지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로 인해 소수의 올바른 의견도 묵살되어서도 안된다.

시험을 치른 학과든지 또 못 치른 학과든지 각기 나름대로의 공동의견을 수합해 행동에 옮길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한가.

거부나 연기한 학과생들은 7월초에서 중순까지 시험을 치뤄야 한다. 만약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24일 이후에 그의 지를 표시시키고, 결집된 힘을 보이고 투쟁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그보다.

대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기말고사 거부·연기를 결정된 일부 학과에서는 정공시험에 대해서도 거부·연기를 결정했거나 소수의 인원은 시험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뤄버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우리는 시험을 거부·연기한 것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기말고사로 인해 앞서 밝혀진 것들이 그르칠까하는 염려 때문에 거부와 연기라는 결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인 시험을 거부·연기까지 하면서 뛰어나가했던 동료도, 절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시험을 치렀던 동료도 모두 피해자이며 가해자이다.

강조해 두고 싶은것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의 투쟁 연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사회의 내재적 모순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성인이라는 명을 뒤집어 쓰고 비겁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자성으로 자신을 돌아다보

자. 【특집부】 【德】

참된 가치를 지닌 理想

참된 가치를 지닌 이상은 무가치해지거나 낡아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참된 이상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이상은 흐트러질 수 있고, 또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보통 정신적으로는 공허합니다.

이것은 근원적 사유의 습관이 버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합리적 사고는 인류가 참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실존의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An ideal which has true merit cannot be worthless or out-of-date.

Time has no impact on the true ideal.

But it can become obscured, and that is often what has happened.

Mankind today is technically brilliant but often spiritually empty

because the habit of fundamental thought has been abandoned.

Yet fundamental and rational thinking is essential for mankind

to reach true awareness.

Men must discover for themselves, in their own minds,

the truth of existence.

—알베르트 슈바이처 “생명에 대한 의경(Reverence for Life)” 중에서—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 서울 794/8080 ● 부산 462/8080 ● 대구 72/8080 ● 광주 223/8080 ● 대전 624/8080 ● 인천 431/8080 ● 마산 44/8080 ● 원주 46/8080 ● 수원 37/8080 ● 제주 43/711

 52-9596

크라운맥주

제주시연동 301-12 (신제주로터리) ☎42-9220, 27-4315